

#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전서윤  
2022 년 1 학기 독일 TUM 파견

## 1. 동기 및 파견 지역/학교 선정 이유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고 서울대학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꿈꿔왔으며 유학이나 해외취업과는 별개로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라 생각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공학이 발달한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뮌헨은 치안이 좋고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잘 되며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좋은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TUM 이 informatics 에 강한 학교이기도 하여서 큰 고민없이 뮌헨 공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2. 출국 전 준비사항

### 1) TUM 지원 및 기숙사 신청

봄 학기 기준 10 월에 파견학교 측에서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자세한 메일을 보내주고, 지원 이후 1 월에 등록 절차에 관한 메일을 보내줍니다. 등록금 송금, 학생증 사진 업로드,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 등을 해야합니다. 보험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독일 공보험인 TK 에 가입하였습니다. 기숙사 관련 안내 메일은 1 월 말에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교환학생에게는 거의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해줍니다. 저는 Olydorf 라는 기숙사를 배정 받았는데 규모도 크고 시설도 비교적 새 건물이라 좋았습니다. 기숙사에 따라 다른데 Olydorf 는 전부 개인주방, 개인욕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메일에 자세히 적혀있고 reminder 도 자주 보내주니까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 2) 비자

코로나 이전에는 아침 일찍 외국인청(KVR)에 가서 줄을 서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많은 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외국인청의 대답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실제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4-5 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받아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에서 신청할 경우의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6-8 주 이내에 테어민(appointment) 날짜를 메일로 알려줍니다. 보통 테어민 날짜는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4 주 정도 후입니다. 테어민날 방문하면 당일날 스티커비자를 줄 수도 있고 또 4 주동안 카드비자를 우편으로 받기를 기다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 3) Practical Course 및 seminar 신청

뮌헨공대의 대부분의 수업은 정원이 정해져있지 않, 학기 중반까지도 수강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수업들도 있습니다. Informatics의 경우에는 실습 위주의 practical course와 논문 리딩 및 작성을 하는 seminar 수업의 경우가 그러하여서 학과 측에서 따로 안내를 해줍니다. 로드는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을 수 있지만 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흥미로운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 4) MINGA / TUMI (party animals)

MINGA는 Informatics 학과 차원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사항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같은 국적으로 맞추어서 배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ESN TUMI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단체인데, 4월 첫째주에 party animals라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신청이 선착순으로 마감되어서 저는 신청을 못했지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재밌어보여서 추천합니다.

## 3. 학업 및 학교생활

### 1) 수업

campus.tum.de에서 수업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들이 등록되기 전에 이전 학기들의 수업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cs의 경우, 몇 개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과목 코드 IN5xxx, IN8xxx), 대부분의 수업을 교환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서울대학교에 비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학기 중반까지도 수강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과 별개로 시험 신청을 따로 합니다.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성적표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듣고 싶은 과목은 전부 수강 신청 해두고, 시험 신청 기간에 선택해서 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출석 점수가 없고, 과제는 필수가 아닌 제출한 경우 보너스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시험은 절대평가로 40%-60%를 맞으면 Pass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pass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22년 봄학기의 경우, 많은 수업들이 현장 강의와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주고 수업 영상을 녹화해서 남겨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일어 수업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있어 수강 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https://www.sprachenzentrum.tum.d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수강하였던 수업들의 경우로 수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 ZHS

TUM 이 아닌 뮌헨 내의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센터로 10 유로를 내고 카드를 발급 받으면 다양한 운동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같이 인기 있는 코스는 금방 마감이 되어서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조정(rowing)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추가로 돈을 내야하긴 했지만 쉽게 해보기 어려운 스포츠를 배워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https://zhs-muenchen.d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TUMI / Studentenwerk

위에서 언급한 ESN TUMI 와 기숙사 측(Studentenwerk)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페라, 발레, 클래식 연주회 등의 문화생활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추천합니다. 관련해서는 메일로 자주 공지를 해줍니다.

## 4. 현지 생활

독일인들이 무뚝뚝하다는 선입견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대체로 상냥하기보다는 그러한 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표현이 무뚝뚝할 뿐 대부분의 뮌헨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뮌헨은 바이에른 지역 내의 도시로 전통의 색이 강한 지역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지역 행사 날에는 재밌는 문화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와 다른 뮌헨의 매력일 것입니다.

유럽 생활이 한국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도라고 느꼈습니다. 행정 처리는 물론,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생활의 속도가 한국에 비해 많이 느립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느림에 적응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Olydorf 바로 앞에는 Olympia park 가 있고 뮌헨의 중심에는 영국 정원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잘 되어있어서, 피크닉도 자주 가고 수영도 자주 가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한강에서 수영하기는 어렵다보니.. 뮌헨에서 그런 자연을 많이 누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트 물가가 외식 물가보다 많이 싸서 많이 해먹게 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보통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해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뮌헨 생활 외에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뮌헨 공항은 저가항공사가 잘 다니지 않아서 비행기 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보다는 버스나 기차로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Flixbus 의 경우,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는 많이 다른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저의 삶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귀국할 때, 뮌헨을 떠난다는 아쉬움도 컸지만, 앞으로의 삶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공개 국제협력실과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두렵거나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많은 도전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